

## II. 主要 懸案

### 1. 通信設備 市場 開放과 波及 效果

- (焦點) AT&T社가 新型 電子 交換機의 國內 입찰권을 획득한 배경은 한국 의 차세대 디지털 通信設備 市場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임
- (影響) 政府의 입찰 허용은 통신설비에 대한 國內 調達 市場 開放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고 國內 통신설비 업체의 市場 進入 障壁을 높이게 될 것임
- (展望) 國內 교환기 市場 잠식과 통신설비 업체의 技術開發 意志 弱화 招來  
- 先進 通信 設備 業體의 國內 通信 系統 市場 進入은 市場 掌握으로 이어져 國內 通信 설비 업체의 成長을 萎縮시킬 가능성이 있음
- (對應) 선진 업체와의 共同 開發 方式 活用 및 國內 업체간 경쟁을 통한 技術力 確保와 大型化로 競爭力 強化 必要

#### ○ 主要 內容과 背景

- 韓美 兩國은 美 AT&T社의 新형 전자 교환기 5ESS-2000을 금년 하반기 한국 통신의 전자 교환기 구매 입찰에 品質 認證 節次를 일부 생략하여 참여시 키기로 합의
- 즉 70주(약 1년 4개월)가 소요되는 품질 인증 절차를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기능 검사만으로 대체하여 입찰 참여를 허용
- 단, 낙찰시 適合性 檢査를 마친 后 납품토록 한다는 데에 잠정 합의
- AT&T社가 미국 政府의 힘을 빌려 금번의 합의 結果를 이끌어 낸 背景은 향 후 한국 次世代 通信 設備 市場을 先占하겠다는 포석
- 5ESS-2000은 대부분의 부품을 ASIC(주문형 반도체)으로 대체하였으며, 종합 정보통신망 지원 기능과 멀티미디어 통신용 교환 기능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 동 통신용 교환기로도 탁월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
- AT&T社는 5ESS-2000의 높은 경쟁력을 앞세워 금년부터 10 年間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國內 교환기 市場 뿐만 아니라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디지털 이동 통신 장비(98년까지 3조 원 규모), 개인 이 동 통신(PCS) 등 차세대 통신 설비 市場까지 선점하겠다는 의도임

#### ○ 影響

- 金번의 조치는 政府 스스로 調達 規定을 無視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카 텔社, 에릭슨社 등 세계적인 여타 통신 설비 업체들이 衡平性을 이유로 國內 진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 政府가 회피할 길을 없앴

- 금번 조치는 美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정부 조달 분야의 불공정 관행 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였고 WTO의 기본통신협상그룹에서 7월 1일까지 양허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한 데 연유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에서 금번 조치는 9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通信 設備에 대한 調達 市場 開放을 부분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앞당길 것임
- 또한 기존 품질 인증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하는 국내 교환기 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市場 進入 障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 波及 效果

- AT&T社는 금년 하반기중 한국통신에 35,000 회선, 약 4% 정도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市場 蠶食 效果는 별반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AT&T社의 5ESS-2000(최대 용량 30만 회선, 1 회선당 100 달러 수준)은 국내에서 개발된 TDX-10(최대 용량 10만 회선, 1 회선당 200 달러)에 비해 성능과 가격면에서 뛰어나 수요가 증가할수록 국내 교환기 시장이 크게 잠식될 것임
- AT&T社를 비롯한 선진 통신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의 早期化는 디지털 교환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중인 국내 통신 업체들에게 투자 위험도를 증폭시켜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할 것임
- 그리고 일단 통신 시스템이 설치되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 통신 업체에 의한 國內 市場 先占은 國內 市場 掌握으로 이어져 국내 통신 설비 업체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됨

## ○ 對應策

- 이번 韓美間 합의를 계기로 선진국의 국내 통신 설비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 설비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競爭力 強化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통신 설비 업체들은 선진 업체와 通信 設備의 共同 開發을 추진해 核心 技術 開發 時期를 앞당겨야 할 것임
- 현재 전세계 통신 설비 시장의 절반 이상이 알카텔(프), AT&T(美), 노던텔레콤(캐), 에릭슨(스웨덴) 등 大型 通信 設備 業體들에 掌握되고 있음
- 또한 기술 개발이나 품질 향상과는 관계없는 현행 통신 설비 低價 入札 購買 制度를 가격과 성능, 유지 보수 능력, 성능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綜合 競爭 入札로 轉換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動機를 유발시켜야 할 것임
- 그래야 국내 통신 설비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技術力 確保와 大型化로 自生力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운 창 호)